

‘후후한 교사, 꿈틀거리는 아이들’



가정

하나님께
예배 드립니다.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설교

친구들, 혹시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, 마음이 속상하거나 혼나기 싫을 때 “아, 집 너무 가기 싫다!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오늘 성경에도 집을 떠나고 싶었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. 예수님은 ‘둘째 아들’을 소개해 주세요.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“아버지 재산 주세요!”라고 말하며 집을 떠났어요. 그리고 멀리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돈을 다 써버렸죠. 하지만 돈이 떨어지고, 먹을 것도 없어지자 친구들도 모두 떠나가 버렸어요.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였어요.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어요. “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었는데…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?”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요. “아버지께 돌아가서 사과해야겠다.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셔도 좋아. 일꾼이라도 좋으니까…” 하지만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! 아버지가 그를 ‘먼저’ 보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한 거예요! “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! 잃었다가 다시 찾았구나!”

친구들,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세요. 우리가 실수해도,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예요.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셔서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세요.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. 거짓말했을 때, 화났을 때, 기도하기 싫어졌을 때, 예배에 집중이 안 될 때… 그럴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. 하나님은 언제나 “기다리고 있었단다!” 하며 우리를 반겨 주세요. 우리 친구들,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어요!

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누가복음 15:11~24절 다 같 이

설 교 집으로 돌아온 아들,
끝까지 기다리신 아버지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부모가 자녀에게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찬 양

내가 매일 해야 하는



▶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집을 떠났던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,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세요.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신다는 진리를 믿게 해 주세요.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말씀나눔

1.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났고,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셨나요?
2.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?
(예: 기도, 예배 집중, 화내는 마음, 미루는 습관 등)